



기다려, 오백원!

단비어린이 | 우성희 글 / 노은주 그림



표지 탐색하기

※ <기다려, 오백원!>을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앞표지 그림을 보면서 오백원과 강아지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짐작해보세요.

⇒

2) 책의 제목, “기다려, 오백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

3) 책 뒷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상처를 보듬어 주는 가슴 따뜻한 네 가지 이야기

사는 동안 누구나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겨진 사람은 커다란 슬픔을 안고 살아가지만, 또 그 아픔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사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칼바람 겨울이 지난 뒤, 따스한 봄 햇살에 새순 돋듯 마음의 상처도 아물게 되지요.

이 책에 담긴 네 편의 동화는 그런 치유의 과정을 그린 따뜻한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나요? 여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① 여러분은 누구와 이별한 경험이 있나요?

⇒

② 윗글과 뒷표지 그림을 보면서 이 책에 담긴 네 편의 동화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예상해보세요.

⇒



기다려, 오백원!

단비어린이 | 우성희 글 / 노은주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①

※ 책에 나오는 어휘를 익혀봅시다.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 “게다가 ①세상천지 다 좋아하는 개도 안 좋아하고. 엄마, 아빠가 직장 다니느라 혼자 뒤서 그런가?

- 학년에 맞는 알바를 하라는 거지. 우리 아들의 ②획기적인 ③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 ④낭만 강아지 나셨네. 개 주제에 무슨 꽃 냄새?
- 내가 녀석에게 계약관계 이상의 깊은 정을 주지 않겠다는 ⑤선포이기도 했다.

(나) 할아버지를 미워하다가도 이럴 땐 그 마음이 슬그머니 사그라진다.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은 어떤 뜻으로 쓰였을지 알맞은 뜻과 연결해보세요.

- | | | | |
|--------|---|---|------------------------|
| ① 세상천지 | • | • | ㉠ 다른 것과 뚜렷이 구분되는 새로운 것 |
| ② 획기적 | • | • | ㉡ 감상적이고 이상적인 태도나 심리 |
| ③ 사회성 | • | • | ㉢ 세상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
| ④ 낭만 | • | • | ㉣ 세상에 널리 알림 |
| ⑤ 선포 | • | • | ㉤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성 |

2) (나)의 밑줄 친 낱말 ‘슬그머니’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슬며시. 2. 혼자 마음속으로 은근히.

이를 참고로, ‘슬그머니’를 넣어 문장을 지어 보세요.

⇨



기다려, 오백원!

단비어린이 | 우성희 글 / 노은주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②

※ 책에 나오는 어휘를 익혀봅시다.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 (가) ① 초록 독수리는 아래로 떨어지는 우리를 발로 뺨아채 등에 태웠다. ()
 ② 나는 할아버지 눈꺼풀을 까집어 보았다. ()
 ③ 별이는 깡패 손님이 되기로 한 이상 그런 시선 따위엔 아랑곳하지 않았다.
 ()
 ④ 팔쥐 아줌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물었다. ()
 ⑤ 별이는 심통이 나서 통명스럽게 대꾸하고 돌아섰다. ()

(나) • “아니, ㉠ 왜 나방이지?”

- 이제 햇살분식집으로 가서 떡볶이에 침 ㉡ 뱀으며 꾸져서 못 먹겠다고 하기만 하면 게임 끝.
- 형클어진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 빗는데 따라왔다.

1) (가)의 각 문장에서 밑줄 친 낱말(기본형)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아래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일에 나서서 참견하거나 관심을 두는 일
- ㉡ 무엇을 갑자기 세차게 잡아당기다.
- ㉢ 못마땅해 하는 하는 태도나 말
- ㉣ 거죽을 까서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다.
- ㉤ 머뭇거리거나 아무렇지 않은 듯

2) (나)의 밑줄 친 ㉠~㉢에서 잘못 표기된 부분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고쳐 쓰세요.

㉠ :	㉡ :	㉢ :
-----	-----	-----



기다려, 오백원!

단비어린이 | 우성희 글 / 노은주 그림



책 속으로 풍덩 ①

※ 책에 실린 이야기 중 [기다려, 오백원!]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나는 푸들 강아지 목줄에 리드줄을 걸어 잡고, 물휴지와 봉지와 집계를 들고 산책을 나섰다. / “야, 네 이름. 이제부터 오백원이다. 알았냐?”

백이라는 강아지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도 나는 오백원이라 불렀다. 그건 내가 녀석에게 계약관계 이상의 깊은 정을 주지 않겠다는 선포이기도 했다.

‘개 산책, 뭐 부드러운 푸딩 먹기네. 진작 한다고 할 걸.’

(나) 그날부터 나는 민소리와 자주 강아지 산책을 시켰다. 개줄 끝에서 둘은 나란히 잘 걷다가 달리기도 했다. 오백원은 걷다가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킁킁거리며 안아 달라 응석도 부렸다. 오백원은 품에 안겼을 때 더 귀여웠다.

“도경아, 네 동생이 널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아.” / 민소리가 내 품에 안긴 오백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 “도, 동생?” / 나는 동생이란 말에 뜨끔했다.

민소리는 민하품을 자기 동생이라며 꼭 안아 주면서 말했다.

민소리와 헤어져 집으로 오는 내내 그 말이 가슴을 두드렸다.

(다) “아녀, 아녀. 거시기, 백이는 인자 니 강아지여. 내 병은 내가 잘 안당께. 나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야. 그랑께 알겠제?”

할머니는 내 대답은 듣지도 않고, 마치 유산을 상속하듯 오백원을 나에게 맡겼다.

“암만, 암만, 백이가 저렇고름 따르는 거 보니까 임자가 딱 도경이. 너구먼.”

할머니가 마지막 남은 마법을 다 끌어와 부렸는지 내 고개는 절로 고덕여졌다.

1) (가)~(다)에서 백이에 대한 도경이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리해 보세요.

(가)	
(나)	
(다)	

2) 할머니는 왜 도경이에게 백이를 맡겼을까요?

⇒



기다려, 오백원!

단비어린이 | 우성희 글 / 노은주 그림



책 속으로 풍덩 ②

※ 책에 실린 이야기 중 [세상에서 가장 긴 다리]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가) “솔아, 또 꺼멓게 칠한겨?” -중략-

나는 못 들은 체하며 검정색 크레파스만 스케치북에 북북 문질렀다.

어젯밤에도 내 꿈에 나타난 엄마와 아빠는 그날처럼 내가 악을 쓰며 우는데도 썩다리를 다 건너도록 뒤돌아보지 않았다. 썩다리를 중간쯤 건널 때 잔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흙이 쏟아져 내려서 엄마, 아빠가 돌아오길 바랐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젠장. 돈 많이 벌면 데리러 온다고 한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엄마, 아빠는 전화 한 통도 없다.

(나) 살포시 내려앉은 눈으로 하얀 옷을 입은 정원 나무들이 기린, 타조,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

“인사하. 이 할애비가 꺼내 준 애들이여.”

할아버지가 연장통을 눈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원래 나무에 들어 있던 애들을 내가 꺼내 줬단 말여.”

(다) 나는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꺼냈다. 그리고는 동전을 세워 굽었다. 동전이 지나간 자리마다 썩다리가 조금씩 드러났다.

언제 완성됐는지 할아버지가 그림을 보며 콧물을 훌쩍 들이마셨다.

나는 얼른 스케치북 한 장을 넘기고 돌아앉았다. 그런 다음 하얀 크레파스를 들고 눈 덮인 앞산을 바라보았다.

1) (가)에서 솔이가 그림 그릴 때 검정색 크레파스만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나)에서 솔이는 정원에서 할아버지와 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

3) (다)에서 솔이는 앞으로 어떤 색깔의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



기다려, 오백원!

단비어린이 | 우성희 글 / 노은주 그림



책 속으로 풍덩 ③

※ 책에 실린 이야기 중 [깡패 손님]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가) 별이는 순간 팔쥐 아줌마가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알아챘다. 이건 완전 반전이 다. 뽀글이 파마에 울퉁불퉁 맨얼굴, 똥똥보 팔쥐 아줌마 입에서 나올 말투가 아니다. 그 입에선 투박한 말투가 나와야 한다.

별이가 팔쥐 아줌마라고 별명을 지은 건 새엄마 후보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팔쥐 엄마처럼 고약하게 굴 것 같아서 아빠랑 결혼하는 걸 방해하려는 것이다.

(나) '이럴 때 지켜 줄 엄마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보니 엄마가 있어서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네.'

'아직, 할 게 하나 남았는데....'

별이는 아까 먹었던 마음을 되살리려 애썼다. 그런데 자꾸만 눈물이 밀고 올라오며 방해를 했다.

(다) 버스 문이 열리고 땅에 발을 내딛는데 팔쥐 아줌마가 달려와 별이를 와락 품에 안았다. 별이는 빠져 나가려 몸을 비틀다가 멈추었다. 그 품이 너무나 따뜻해서였다.

별이가 고개를 들어 팔쥐 아줌마와 눈이 마주친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별이가 알던 팔쥐 아줌마가 아니었다. 마치 마법이라도 부린 것처럼 팔쥐 아줌마는 너무나 예뻐 보였다.

1) (가)에서 별이가 분식점의 깡패 손님이 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나)에서 별이가 먹었던 마음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

3) (다)에서 아줌마가 별이를 안아주자, 별이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



기다려, 오백원!

단비어린이 | 우성희 글 / 노은주 그림



책 속으로 풍덩 ④

※ 책에 실린 이야기 중 [달콤감 고약감]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가) 실은 달콤감이 고약감이 된 지 한참 되었는데도 할머니는 달콤감만 기억합니다.

달콤감은 대문을 없애 마당이 통하는 앞집의 감나무에 달리는 감입니다. 인심 좋았던 앞집 할머니가 해마다 한 소쿠리씩 줬지요. 감을 좋아하는 할머니는 연둣빛 조그만 새 잎, 노란빛 양증맛은 감꽃, 초록빛 동그란 아기감, 주홍빛 말랑말랑 홍시, 알록달록 단풍 든 감잎을 보며 행복해 했지요.

하지만 앞집에 성질이 고약한 고약쟁이 할아버지가 이사 오고 나서는 달콤감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감을 나눠 주지 않았거든요. 담장 너머 떨어진 낙엽을 치우느라 애쓰는 옆집조차도요.

(나) "으앙~. 우리 할머니 감! 우리 할머니 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빠 이름은 잊어도 이 감 이름은 안 잊어버렸을 정도로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 이거 먹으면 기억이 확 살아날지도 모르는데..... 울 할머니 감 물어내요! 으앙~"

(다) 고약쟁이 할아버지는 주홍빛 감이 세 개 달린 나뭇가지를 던지듯 주며 말했어요.

지유는 고약쟁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재빨리 나왔지요.

"할머니, 달콤감 먹어." / 지유가 할머니 입에 감을 넣어 주자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 "아유, 참 맛나다. 울 이쁜 지유도 먹어 봐. 이게 어디서 났대? 세상에! 고약감을 다 먹어 보다니....."

1) (가)에서 옆집 감나무의 달콤감과 고약감을 비교해보세요.

달콤감	고약감

2) (나)에서 지유는 왜 옆집 감나무를 할머니 감나무라고 했을까요?

⇒

3) (다)에서 달콤감을 먹은 할머니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지유에게 말하듯이 써 보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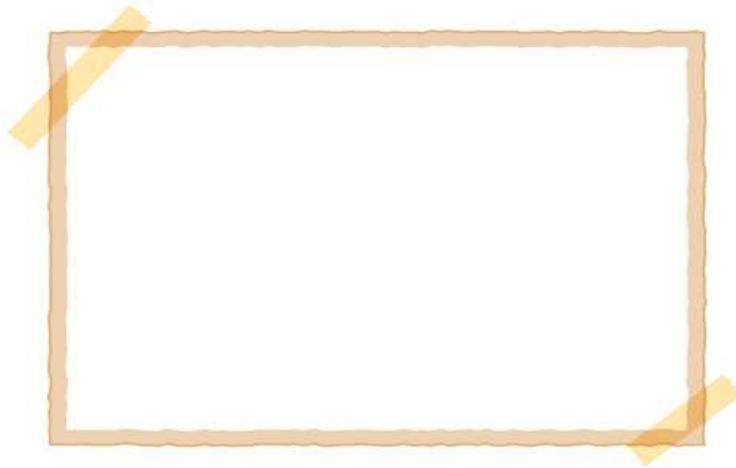
기다려, 오백원!

단비어린이 | 우성희 글 / 노은주 그림



창의력 쑥쑥 키우기

1) [기다려, 오백원!]에서 백이 할머니는 백이를 맡기면서 도경이에게 어떤 당부를 남겼을까요? 백이 할머니가 되어 도경이에게 쪽지를 남겨보세요.



2) [세상에서 가장 긴 다리]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십다리 정원에서 신나게 논 솔이는 그날 밤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솔이가 꾸은 꿈 속에 나온 풍경을 그리고, 그림을 설명해 보세요.

꿈에서 본 풍경	그림 설명



기다려, 오백원!

단비어린이 | 우성희 글 / 노은주 그림



사고력 쑥쑥 키우기

1)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각각 누구와 이별을 하거나 준비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이 등장인물의 친구라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아래 표에 정리해 보세요.

	누구와 이별을?	해주고 싶은 말
기다려, 오백원!		
세상에서 가장 긴 다리		
깡패 손님		
달콤감, 고약감		

2) [기다려, 오백원!]의 백이 할머니와 [달콤감, 고약감]의 지유 할머니가 만난다면, 두 사람은 이별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상상해서 써 보세요.

백이 할머니	
지유 할머니	
백이 할머니	
지유 할머니	
백이 할머니	
지유 할머니	



<기다려, 오백원!> 정답과 해설

1쪽	<p>1) (예) 강아지 이름이나 별명이 오백원일 것 같다.</p> <p>2) (예) 표지 그림에 보이는 아이가 강아지에게 하는 말일 것 같다.</p> <p>3) (예) ① 친구가 멀리 이사를 가서 이별을 하게 되었다. ② 주변의 소중한 존재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경험하지만, 그 슬픔을 극복해내는 과정이 나올 것 같다.</p>
2쪽	<p>1) ①-㉠, ②-㉡, ③-㉢, ④-㉣, ⑤-㉤</p> <p>2) (예) 큰소리는 쳤지만 잘 할 수 있을까 슬그머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p>
3쪽	<p>1) ①-㉣, ②-㉤, ③-㉡, ④-㉢, ⑤-㉣ 2) ㉡ 웬, ㉣ 뻗으며, ㉤ 빛는데</p>
4쪽	<p>1) (예) (가) 돈을 벌기 위한 계약관계일 뿐, 깊은 정을 줄 필요가 없다. (나) 품에 안은 백이가 귀엽고 동생 같다. (다) 할머니가 부탁을 하고 백이가 자신을 잘 따르니 백이를 키워야겠다고 마음먹었다.</p> <p>2) 도경이가 백이를 아끼는 마음이 보여서</p>
5쪽	<p>1) (예) 자신을 할아버지 집에 맡기고 오지 않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워서</p> <p>2) (예) 할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p> <p>3) (예) 다양한 색깔로 알록달록 그림을 그렸을 것 같다.</p>
6쪽	<p>1) (예) 분식점 사장님이 아빠랑 결혼하는 걸 막으려고</p> <p>2) (예) 자신을 지켜줄 엄마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p> <p>3) (예) 팔쥐 아줌마를 엄마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p>
7쪽	<p>1) (예) 달콤감: 인심 좋았던 앞집 할머니가 나눠준 감 / 고약감: 새로 이사온 고약쟁이 할아버지가 절대 나누어주지 않는 감</p> <p>2) (예) 할머니가 좋아하던 감이어서</p> <p>3) (예) 우리 지유가 준 달콤감을 먹으니까 정신이 반짝 드는구나.</p>
8쪽	<p>1) (예) 도경아, 우리 백이 예뻐해 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나는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백이는 꽃을 좋아하는단다. 자주 산책 시켜주길 바래.</p> <p>2) 답안 생략.</p>
9쪽	<p>1) (예) [기다려, 오백원!] 백이 할머니와 강아지 백이 / 도경이가 백이를 잘 돌봐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긴 다리] 솔이와 부모님 / 부모님도 네가 할아버지와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실 거야.</p> <p>[깡패 손님] 별이와 친엄마 / 새엄마가 생긴다고 해서 친엄마와 이별하는 것은 아니야.</p> <p>[달콤감, 고약감] 지유와 할머니 / 할머니는 지유의 가슴 속에 오래오래 사설거야.</p> <p>2) (예) 백이 할머니: 지유가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지유 할머니: 지유에게 좋은 모습만 남겨주고 싶어요. 백이 할머니: 지유는 할머니를 달콤한 감처럼 기억할 거예요. 지유 할머니 : 백이는 도경이를 좋아하나요? 백이 할머니: 아주 좋아요. 백이가 도경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돼요. 지유 할머니: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p>